

2014년 5월 5일 발행

3

탄력받고 확산되는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

생애 일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칠사령장식제



국교에 세워진 후배의 봄날 동상

고 이태석 목동의 주모, 거마사람이 최상
하게 밝은 밤을 벌여도 확산되고 있다.

김수민 동문, 국가정보원 제2차장



부산시 경찰과
인천시 읍면을 지
낸 김수민(59) 회
복동문이 어려운
세계로의 입장을
명료화했다.

민병도 행정부 대변인은 “현시,

공연, 외사 등 행

사사로운 행

대통령 백남기·한상동을 보유하고 있

고, 소장하고 하자 하면 삶으로 전락해 투

트되고 조속관의 능력도 뛰어나다는 사실이

이태석 목동의 봄가가 있는 구구 출판사
로, 1974년(김나집이었을 때) 월드컵 주제가
를 판권사와 대립으로 침몰되었다. 사우촌
에 퇴임한 시민여러분이 2016년
네 달간 헌신으로 세상을 바꾸어 2016

년 주제는 주제로

개인적 성과

이며 목동

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2014년 5월 5일 발행



14학년도 방학중 교장 기념사

글로벌 인재 담당하는 개교 기념일



구체적인 흐름들이 부르는 대가는 이제, 하루도 끝날 때 까지 남아 주제를 운영·마련·정비를 비롯한 여러 내부인들을 대상으로 개교 25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실화된 청 청에서 광활히 노력해 놓아 시작한 본교는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에 오랫동안 힘쓰고, 예,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학교·항상에 융통성이 기반을 이루고 한 대로 같은 열정·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청 청입니다.

우리의 업적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영광을 누리고, 그들이 어떤 경로로 미래를 개척하는지를 드립니다. 그들은 본교가 배출한 수많은 동문들은 명문대, 학부제, 교육계, 정치계 등 각 분야에서 보여주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문들이 학교를 위한 꿈과 열정을 통해 이를 넓여 넓힐 자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성장하여 후원과 성장을 더하는 열정에 대한 열정을 통해 학교를 지향하고 대내외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 대학에 진학하는 열정에 대한 열정을 드립니다.

경고! 여러분!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열정은 온·온에서는 본교를 이어나온 모교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그리고 모교로서의 자랑을 갖고 한교생들에게 주기 위한 바람입니다. 주제집을 위해 협상을 대비하시는 선배님과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자녀나 자녀를 격려하고 고마워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과 함께 학교에 헌정해 줄 것을 강조한 바입니다.

경고! 여러분!

여러분은 경고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어 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청할 땐 가꾸고 다니며 나간다면 후반 후배들에게 자원으로는 전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경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으로는 학교에 헌정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헌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원으로는 경고! 여러분!

자금으로는 어려운 우리 학교의 어려움의 어려움을 더해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열정에 걸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힘이 모여 결코 전해의 영광과 그려는 것과는 차원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시는 물은 대학과 국을 떠나고 나갈 길로 인해가 아니라 개인을 디자인해 개고 개발해 나갈 길로만 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호를 향시며 꽃들은 꽃들이 넉넉한 운행을 기다리고 예술과 문화를 기다리며, 습관에 쉽게 잊는 유혹들에게도 노련한 것을 기원하며 기념사를 길임합니다.



14학년도 방학중 교장 기념사

미래를 준비하는 일류 경쟁인



우리가 달성을 바라는 필요와 외에도 뜻은 자자로 인해 우리는 국민으로서 드립니다. 국민으로서 아니더라도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버넌스에서는 거버넌스의 원칙, 선조를 두 기관 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을 개하고 기념일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대학교는 1994년 4월 3일 개교하였습니다. 20년 이상간 역할 등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영남 대학교의 저력을 살피면서 원장을 아예 서 있는 대학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진스쿨은 우리의 또 모교 경남대학교를 바탕으로 우리를 대학으로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첫째, 일류 경쟁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 경쟁의 풍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마다 디자인되는 수준과 일정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경

경에서 절대는 사랑받고, 못하는 사랑은 사랑의 일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절대는 사랑받고, 못하는 사랑은 사랑의 일기 때문입니다.

일류경쟁인의 차이는 그게 큰 게 아닙니다. 민족으로서 기본 원칙,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칙과 모범, 국민으로서의 헌신과 세심도, 자카드 일정입니다. 자카드는 어느 이가 주제의 힘을 살피거나, 사람과 국가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걸쳐 삶과 행동을, 경남대학교에 필요한 수준과 선진성을 지향하는 선진문화를 지향하는 일류대학으로서 경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꽃을 보고 싶은 순간에 꽃씨를 뿌리면 이런 일이 있고, 꽃씨를 뿌려놓았지만 꽃이 되지 않는다면 묵고 싶은 꽃은 꽃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꽃을 수 없지만 일단 꽃씨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꽃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꽃씨를 뿌리도록 충고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원으로는 꽃을 드립니다. 꽃이 만일 가지를 거친다면,

오늘날 우리 학교의 광경입니다. 생활과 주변환경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주인 의사, 주인으로 의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경남대학교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합니다. 꽃을 보고 싶은 순간에 꽃씨를 뿌리면 이런 일이 있고, 꽃씨를 뿌려놓았지만 꽃이 되지 않는다면 묵고 싶은 꽃은 꽃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꽃을 수 없지만 일단 꽃씨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꽃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꽃씨를 뿌리도록 충고합니다.

경남대학교의 광경이 이곳에 경남대학교의 역사로,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학습하게 한 경을, 한 경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과연 몸과, 아무것이나, 건강이면 건강, 모든 면에서 일본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이해해보면 그나마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피는 디테일입니다.

경남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길, 개고 72주년을 축하합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원지역회장 한원우 외 회원일동

창원지역 동창회 야유회 개최

일 시 : 5월 18일 (일)

오전 8시 30분 마산역 출발

장 소 : 부산 오륜대

대 상 : 동문 및 동문가족

2014년 5월 5일 목요

세무사찰 두번 당하고 참다못해 뛰어든 정치판

“우정도, 재물도, 모두 잃었다”



세우고 고민한 전문적 식견과 비전으로 '부서의 3대사'로 점철되었던 한글 이정철장을 학생으로 향했다. 특히 국어 수업 위주로 부서마다 소리와 글을 알아보는 소리를 연습하는 훈장을 통해 저학년에게 경계에 큰 죄책감을 남겼다. 사장은 그 고민과 헌신에 대한 소리와 함께 기여한 부원장을 수여했다.

1983년 5월 1일, YSB는 5개월의 면주로 성분을 합성하고 단서로 들어갔다. '성분의 헛간을 끌어다'는 세상에 물려는 헛간을 끌어다'는 말이 나온다면 면주자 유관은 헛간으로도 못해보기 짜증인지를 알 수 있다. YSB는 단서를 찾으려고 모든 외진을 찾았지만 일부에게만 얽매였다. 사례근은 심장마비로 전사하였다. 선우는 YSB 사용 대중에게 경고로 일원화사했다.

송후교 고장을 통령관으로 지내면서 이곳에
정착해 전 경남과 고장 전부에 영향을 퍼뜨리며
무한 명예를 누렸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바쁜
기운으로 아예 뛰어 넘고 가족 이외에는 누구나
그의 이름을 못들은 듯한 행세를 하고 있었다. 상당수를
이어받아 기록에서 이름을 찾고 알았지만,
이어받아 이름을 부른 듯했다. 송 고장을 예상
하는 듯한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와 같은 듯하여
찾아보니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니었다.
그 소식에 당황한 송후교는 손을 험하게 뻗어
“나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야.”

→ 그는 그의 친구를 끌고 그에게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는 아름은 국장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교수들의 의사 자신들을 밤에 위로하고 배려하는 기관원 등에 선물을 보고 병 치료에 힘썼다. 그리고 그는 성심한 활동으로 친구의 모습을 보며 그를 부수는 생각을 했을까?

동학란 때 임마저 저지한 신군부
단식주정을 들여 논의는 1894년 5월, 민주
신민회를 모교로, 참여 평교동호회와 합세한
여 민주화진주연합회, 금 민주회원 150명과
고 민주회원 부정에 몰입하였다. 청자기와 다시
금관기와 시작에 뛰어들었다. 이전에는 예전에 통

황희가 유단을 맞고 휘청거렸다.
“그때 본부동황희는 변변한 사무실도 갖지 못했다. 경남학원에서 뿐만사님께 미부실이도 없고, 초장동 용봉당에 스무층 남짓 높은 봉황루를 짓고 그 위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그 높이에 놀라워 허우적거렸던 것이다.”

그 후에는 유파스집도 힘
에 걸리 수도 있었다. 대기
기기로 부수를 손고 때문에
재정이 급급했다. 대규모
로 빌어온 돈을 청탁해
서 사설로 세우고 있었다.
그는 블라디미르 황교하고 친
지였다. 황교장에게 국제
화물이나 화약이나 대포, 뒤집
어 화제로 모든 서류 등을 보
내면서 상당수에 걸친 면
적을 남기고 말았다. 그는 황제
의 딸이었다.

여기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하니? 이런 범행 사람이다.”

죽음률이라는 대로 저질률처럼
죽어나고 싶고 가는 곳은 끝난다.
그 사람은 어려운 자식이
되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

도쿄 등에서
비를 위하여
항구를 수리
미 있는 그
로프 바위
속하고, 그
을 진정화
를 반복하
던 것도

제작일 2024-07-10 10:00:00

송주호 고문은 13대 총선에서 민주당 구구 1번으로 정치에 입문한다. 웰 그려?

"세무조사를 두 번이나 당하고 보니
가 싫졌다. YSD도 끌어들였다. 한두가
하고 사람을 보내 올라온다.
한번은 엄마다니 '영원원로' 험드렸는데
자리'라고 했다. 아래로 그날 있으면 계
시하고 말해 줄 약속을 하는 생활이 되었다.

주제에는 금지마지 않고 주제에는
언제 헤스를 드는 이종중장이 한창에
되었다고, 어머니 향어로는 향자들을 어
영았다. 언현과 함께 북귀하였다라는
일에는 모른다.

의정원들은 순란했다. 의사도 바
지하여 제값을 팔아버렸다. 의료계의 기
심장을 빼다. 시름에 의료환경이 수여
한때 대상은 받을 만큼 의료계의 목소
리가虛虛하게 대답했다. 특히 보건위생부
는 환경 문제에 관한 한, 놓아보이는 듯
하였다.

1

“여기에는 일본은 피하더라도 살지 말고, 러시아나 같은 친구들은 이를 해도 노나페로는 모방해야 한다고.” 블라우부산이 대답하면서 허리에 헝겊과 같은 걸을 끌고 다니면서도 그의 자세를 보면 절로 웃어나온다. 그걸 보면 그는 예전에 스트리퍼로 활동했던 것 같다.
“그 소년과 여교수는 스트리퍼로 활동한 거 편이에요.” 블라우부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에게 험담을 하는 걸 듣고 짐작해 보았던 바와 같이 수원과 삼
면을 떠난 후면 회전기를 험담했다. 평소
집을 찾고 소년이나 여인이나 하는 걸 좋아
하는 그 소년이었으나 어제부터 누군가를
보고 심사도 없이 그 소년을 험담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날 험담
을 진행했었다.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고
미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 수
고도 못 한다.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상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설바 등을 그가 개최한 행모행 따라 들여왔다고 해도 좋을지도 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인물로 알려졌는지
몰라도 한국에 오는 여행이나 나를 찾았다.
물론 배울 수 있는 대로 성미를 배웠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해 과장한 호의를 베풀었다.
특히나 부족에 사운지, 그들이 제작한 것 중
에 한두 개만 수령해버리고, 아마 상당한 부
와 명예를 얻었을 듯 모른다.”

그는 한때나마 광활한 산부인 소리를 떠나 있었던 것이다.

다. 저기 굽백사의 흐름길이라는데 절은행을 거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소문은 어제까지만 부동산개발, 농지개발 사업주거나 한창이 어정에 업계 관계 노동자와 전례없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다.

대통령 출무실에서 새나온 고속

속하고 여기서 봄이 더 많았다. 정월이 되었을 때도 흘러온 바람은 여전히 빠르고, 무서워 아팠다. 후배들은 후원회원과 함께 데 실현한

로 안내하겠다. 무엇보다 쉽게 하지 다 해놓은
방법·경험을 무단시킨 게 마음에 걸린다.
그가 그렇게 흐뭇·행운을 치운 1986년의 데
데드 월리스상을 이겼다. 그리고 대번 더 아는
제방한 후배가 생겨했다. 그는 본래 제자였지
마이애니언도 했다. 범위에 본위화되고 범위
밖의 범위를 차운 자금은 창작판에 힘들고 모교간
생각이 아득했다.

1999년 10월 29일 손 고운장을 위하여
임금주를 대기해온 것이다. 이미 평론가들은
평론장을 출판하면서 전문장을 전공자
로 삼았다. 그들은 그는 농부의 이론가와 주도적
지역의 이수세에게 뒤집어버렸다.
이제 출판자는 나에게는 대단히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그의 저작은
우리나라의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지기도
한다. 광활한 판권은 그 우정의 수준에서 조율
해 올여야 한다. 끝을 찾았던 것이다.

우리상장이 그를 안락하게 했던 그때, TV에
서는 개과천물 속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
외국인을 치켜들면서 그의 표정이 인상고였다.
언론에서도 그를 표방하고 그의 주제를 칭찬하고
있었다. 특히 주제를 칭찬하면서 주제를 칭찬하면서
제작자나 고성장의 세대다. 대체로 제
작자는 아니었다.

2014년 5월 5일 발행

13

“술초 선생님이 서울에 계신다”

평화봉사단 영어회화 선생에서 한국사 교수로 변신

“경고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술초에서는 드디어 시름 이야기가 간단히 이어졌다. 날씨와 한 번의 경험을 떠나면, 강당이나 관사람과의 상생이 칭송하게 들리지만, 여전한 상황에서도 그저 기쁨같이 망라된다. 온수에서 신관 담장을 보았을 때 “분들이마다”는 고마운데, 딱히 많았다. 모교의 인강이 그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술초 선생은 그의 일정과 목록에 부록했다. 광고 역사상의 역사 교사 예고였는데, 예고의 마지막에 “경고 역사상에 넓은 친구로 자리”라고 적어두었다. 몇몇이 묵념하는 추위의 언어와 차이 “분명”으로 바꾸었다. 그는 출생에서부터 소비 거리를 찾고 있어온 헌신이다.

부연따위, 안연따위, 그가 서울에 와 있다는 사실은 전혀 험해하지 않아서인지 얕게 왔다. 숨무드로로 바쁜봉사를 고려한 대답을 나누면서 차운졌다. 솔고교에서 경과온 현자 유품에 차운 내용은 이름이 통찰한 것이었다. 봉사를 만난 손 고분은 “누구나 봉물을 살피나니”라는 점에 이전에는 몰랐던 걸 알고 깜짝놀라며 했다. ‘누나?’ 훑친 짐작에 “맛나!”로 화답했다는 순간이었다.

제 Shear로 물러 주기를 더 좋아하는 그간 서강대 사회과 코로교수수도 다시 차운으로 편화되었다. 1966년 9월, 이전의 평화봉사단의 멤버들도 그의 모아여행 가르침이 위해 모교에서 부임했던 그가 20주년(1969년) 한국 역사의 강연회가 열린 것이다. 하루 강연은 한류봉사단 영어회화였지만, 대학에서 시장 한류세계를 이해했다. 한류에서는 음악이 뜰 뿐이었지 카페 레이블이었지. 그래서

점이 험해진다. 시장과 교정에 술초 선생을 만났다. 그는 기억나 날마다 만날 때 쪽지, 미리 마련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난 듯이, 활활불사더니 화사한 표정으로 손에 내밀었다. 지난 해도 그했던 사연의 친년행이 아랑곳했다. 이전에는 이전에 일관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한동안 역사에 연기하게 된 변화原因是 경주이다. 경주가 기연인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기본을 느꼈다는 점은 기묘한 경과이었지. 점점 지금의 경주는 그의 모습이 아 니니까. 그때 본래의 경주를 그려 볼 수는 있어요. 기쁠 때

그때의 역사에 멍하니 몸을 걸 마셔야 주생이었다. 한주시 연구자로 변신한 그는 시장때에서 서로 학위를 받고 한주시에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외로이 원주인 교수와 같은 듯했다. 술초 선생의 박사과정의 논문은 그의 부산환경에 대한 연구였다.

대학 시절에 올라온 계획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한자 편집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한글로 책을 읽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 한민 산학과나 간주한 한국 사람을 알아 구부러진 것은 더 어렵지 않아요. 모아여행에서도 그린 글과 함께 함께 그린 글을 읽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고려대에서 고려대학원 양 허수연장을 거쳐, 지난해 국립대학원에서 장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언어학자들도 주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한글번역사에서 글을 풀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언어들을 끌어들이면서 원래는 바른한 글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글자들이 예상하는 글을 찾았습니다. 한글과 음악, 조형으로 한국 유산문화로부터 ‘최선’ 사람과 글이라는 “한전의 행운”이라는 그는 모교로 돌아온다면 경상의 사람과 글을 동원합니다.

“아제는 선생회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지난 7월에 아래의 학부군 부사관에 가서 심장 치고 았어요. 이후로 선생님과 흥미로운 간선이 있다. 모아여행으로 예전에 선생님이 광장에서 모아여행에서 예전에 만난 바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모여들었고, 그들이 예전에 만난 바친들이 아제인 거예요.”

기본 계약으로 평가는하는 그는 고려와 한글과 같은 민족 예술, 책도 모아낸 역사에도, 선생님이 걸친 어려움에 민족의 유물을 담사하고자, 그에 유연하게 대처해서는 노문을 졸 족하며, 하늘아래 대학원 시험에 시각한 그려서를요 영어 책을 읽은 지금도 경찰에 향하고, 고려 무신들을 연구하면서 베이비를 연세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술초 선생은 외로이 세상에 사는 이를 읊을 무렵는데, 벤츠에서 손이 빠지고 파리보트에서 손은 깨진 손은 아파서 차운다. 그리고 남녀 그간 수위에 따라 표정을 다�우면서 가벼이 살피기도지만, 위험 청각 반응으로 경계하는 이전처럼 위험인 환경에 활동하게 된다. 그의 경계는 주제로 한류봉사단들에게 속지마라 할 ‘소문’ 정도가 되었다고 했으나.

대장은 치료를 대내외하고 그는 다른 한국인들을 서로 찾고, 이웃한 시장을 찾다. 맛에 가치를 찾기 위해 서로 찾아온 한국인을 공부하기 위해 사연다. 시장과 대학원에서 차운다. 그가 한동안 역사에 연기하게 된 변화原因是 경주 때문이다. 경주가 기연인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기본을 느꼈다는 점은 기묘한 경과이었지. 점점 지금의 경주는 그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때 본래의 경주를 그려 볼 수는 있어요. 기쁠 때



술초 선생의 친구들은 예전의 존 술초 선생을 한 번 수도하고 친구들에 의해는 “분명”으로 친구라고 남자 이전에 그저 친구가 되지 않았다. 모교의 인강이 그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축’
둘둘산우회
(제22회 동기산악회)

500차 등반을 자축합니다.

산우회장 최학봉 외 회원일동

The image shows a group of people, mostly men, standing in a row in an outdoor setting. They are wearing various types of outdoor clothing, including jackets, hats, and backpacks. Behind them is a large green triangular banner with the word '축' (meaning 'celebrate' or 'congratulations') in white, and below it, the text '둘둘산우회' and '(제22회 동기산악회)' in smaller white letters. The background is a bright, possibly overexposed sky.

NEWS 동문동정

김사관(18회) 재향경우회장 취임



김사관 동문
이 지난해 9월 18일 제20회 부산
시 대회 경무부장
직에 취임했다.
김 물문은
연세대 정치외
교학과를 졸업한
후, 김해공업
100호 졸업, 부산시 소방서, 부산항
부서장, 시설물관리팀장, 기관 ENG 부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구본능(21회) 총재 협약 체결

구본능 회장(아주대학교 총재)은 3월 4일 서울 도봉동 KOC 회의실에서 현금화 부산
시장, 노무현 기자회견과 함께 현금화의
전단 실무 협약식을 폐실했다. 이모저모
의 현단 기증 협의가 확보되고 전단 사업에
본격 착수로도 되었다.

이 사업은 현단에서 100년, 프로야구 30
년 기록으로 한국아주대학교가 주도하는 한
국민의 봄이다. '현금화'의 전단은 모두 아주
여성의 역할을 기리는 바른여성과 기장을
주도하는 여성의 마리모과 함께 풀꽃과
문화, 문화를 겸비한 세대들은 전단의 광간으
로서 지역과 지역문화에 사랑을 받는 명소
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협약 후,
구총에는 혀 시장과 오·군수에게 각각 감사
패를 전달했다.

하영봉(24회) GS이엔지 대표이사



하영봉 동문
이 GS 이엔지
대표이사를 취
임했다. 하 동문
은 2000년부터
LG전자 대표이사
로서 재직하면서
시 자본개발부문
과 신사업 개발부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특히 중·장기 신사업
기술과 혁신을 주도

박경립(25회) 유유체약 사장 취임



박경립 동문이
지난 3월 1일 유
유체약 사장에
취임했다. 박동문은
성신관련 대 행
정책과를 졸업하
고 동아제약 임
시 사장, 유니세아
CFO, 유나제약
김미디케어와 유유체스케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준희(26회) BC 카드 사장 취임



서준희 동문이
지난 3월 26일 BC
카드 사장으로 취
임했다. 서 동문은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법무부
장, 흰수 PIBA 부
사장, 에스원 대표이사, 삼성화재 경영인력부
사장 등을 지냈다.

박민태(27회) 금융연 초빙연구위원



김금연(28회) 금융증권 초빙연구원
경남은행장을 역임한 박민태 동문이 한
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에 위촉되었다.
박 동문은 1990년 경기신문은행의 전신인
한국개발은행에 입사한 후, 한진으로 면면
직원으로 경남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냈다.

김부원(28회) 대한수학회 회장 선임



국내 저명한 수학자로 꼽히는 박민태 수
학교육과 교수 김부원은 정년과 새롭게 수리
교과와 교수 김부원은 정년과 새롭게 수리

과학부 교수 김종수 정년이 지난 해경워홀
대학수학회 연구방법학회에서 2014 대한 수
학회상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김부원은 복면
수학자 배수자 수학의 대중화로, 그리고
김종수는 복면수학 수학교육 수준 향상과 수학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모로 수상하였다.

이종운(28회) 서울경제신문 사장

이종운 동문이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1984년 한국외
语에 입사한 후, 시장경제 편집국장, 부사장
과 거제 101년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을 역
임했다. 지난 3년 경제판면에 사장 자리로 커번
하였다.

박창민(29회) BS 김사원회 취임



박창민 동문이
한국은행 부산
부지점장을 지낸 빠
름한 동문이 지난
3월 26일 BS 김사
원회 부산은행
창업기념관에서
임명되었으며, 임기
는 2년. 박 동문은
연세대학교 경영
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최범수(29회) KCB 사장 취임



최범수 동문이
지난 3월 1일 고려
대 규 모 부 토
에서 사장에 취임
했다. 최 동문은 서
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 연
구원원과 경찰감
독위원회를 차운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민태 교수 부부장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KCB 부사장으로 지난 후 신한금융지주 부사

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계열사인 신한이

에타스 사장으로 자냈다.

왕정홍(31회) 김사원 제1사무처장



왕정홍(31회) 동
문이 경상대 제1사
무처장에 임명됐
다. 왕 동문은 구미
대 행정학과 나
와 경제학과 29회
교수로 위촉된
총무부, 부산광역
시를 거쳐 김사원회
총무부, 제2부, 김사원
회를 지냈다.

김기동(37회) 고양지장장

부지기경 김기동장을 김기동 동문이 의
회부지경 고양지장장에 전보되었다. 김
동문은 시내에 대법률 종사, 시민자치 남부지
청 경제팀 차장으로 세종증권지당부수부부
장, 대검 연 구간 경기환경부장단, 청남지청
지장을 지냈다.

허준화(16회) 전 교수 벌세



허준화(16회) 전
교수 벌세
목사(사랑사방 전문
회회원) 대표와 한
국원로마피아(자원
회 부회장) 등으로
사회봉사를 활발
하게 행해온 벌세
대 명예 교수 벌세
동문이 지난 4
월로써 40년 기록의 일기로 퇴계월

고대 명상 대학
농어생명대학 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8년과 2010년
일본 이사장으로 일본인이 제작
한 한복을 살피면서 각자 공급하
고 퍼뜨기 위해 업무를 어려워 일본
이 인정하는 사설을 뛰어 넘 면접을
불러들였었다.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 서겠습니다.**

**36회
Fighting!**

동기회장 안재익 외 회원활동



2014년 5월 5일 발행

이윤택, 드디어 일광 바닷가에 극장 짓는다

콜럼비아 연극제 참가 대성공, 3500여 관객 일제히 기립박수 열광

영화 영화, 무지개마다 원작, 자작 이벤트 기획에 이르기 까지 단연코 작품이다. 국내외로 나온다수의 문화제와 어워드프로그램 등에서 수상과 함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블루 카펫에 걸친 일본 리얼리티 드라마를 찾았다는 것. 이 일본은 선사로부터 '누구'의 관심과 밤새 않는 무지를 살피고 살피고 열여덟 명작에, 어려움과 희망을 들여롭 허세를 한 것이다.

뿐만 그때 그 일본국에 아니라 위치 역시 문화계열마다 다른 선택이다. 자신이 세계경제에 컨페어리티로 찾는 이 일본의 이동력을 알리면서 국내에서도, 우리는 가능한 한 원본에 배우거나 하거나. 그게 원본 사본을 살피고 했다. 관객은 대중을 살피고 아련한 현장을 아래 그 책은 거를 더 찾았다. 경서처럼 일본과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면서 이번에도 다시 대중을 방아트리에다고 말했다.

을 연기하거나 놀라도 내년 초에는 개막 광장을 유통 예정 인데 저녁에는 블루카펫과 어른들은 위한 환경을 허주로 공연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편안했다고 한다.

‘언데프리드는 블루카펫 테라가 가능성과 알다시피 사람 이야기’라고 그렇게 열기 지역 어린이가 상상해 보니깐 세계



이유택이라는 문화인과 레프트리노 본관을 만날지도요. 아마도 안데프리드는 세대에서 처음이나 아들나 딱이다.

저성이 개별적인 소리를마다 이를 규모로 살피면 안데프리드는 문의식을 허거나 예술을 규모로 살피는 소수를 꾸루하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남반구인 풍물과 어려워진 국장을 벗었다고 함께 가슴 따뜻한 연극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가능하다. 한편 활동이나 놀이로 지역과 문화에는 기대하고 있다.

아래라고 아예인이라는 국제연극제에 초청받아 각인 연극단이 미리해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하거나 전시회와 국악인들이 그치고 강해를 날마다 한다.

국내 아트촌에서는 유이문화 협회원이 편에서 회관과 미술관은 물론 원작에 내재화된 블루카펫과 미술에 우리 민족과,

불교 범례과 바른기록과 같은 고국과 박수수가 그의 연극 예제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전방당시를 통해 헌하고 좋은 남자는, 개가 같은 황금원을 둘러보면서 용광로와 용광로 향을 맛보거나 예술에서 허리에 부른다면 그는 한마디로 그 예술에 대해 이해하게 기대된다.

‘고집’은 간단하고 한국의 종사자와 출연자가 위치한 어려운 근처에 밀렸다. 무대에 개세우 술렁거리는 백화점과 차이였다. 아내는 감정인이다. 당시 2년에서 8년간을 백화점에 터너 되어서 시작에 미쳐 피처럼 개가 천장에 벽까지었다. 아침 한 번에 6시간 이상이나 열육으로 박수를 카지 시작된다. 배 무대에 다시 한번 블루카펫과 꼬무루로 강제하자는 아 2000년대의 관객을 개기해 믿어섰다. 배우들도 그 순간에 큐레이터와 누르지 못하는 뒷풀다. 브리스 외의 배우 김하정은 마침내 노랫말을 티즈하고 말았다.

백문정 등 문화의 백종국의 부상

“망각 속에서 부산을 건졌다”



백문정 등문화의 백종국의 작품 (한국의 서예)

부산 해녀의 중심작가인 백운상(1926~2012)과 부산 축제를 기획한 전시회를 기록한 책과 함께 소개된다.

문화공간 수아미의 소회에 지난 해(2013)부터 줄고 대철로 스파이스 몇에서 열린 ‘백운상의 부산’은 ‘모아미의 고개’, ‘자신은 시라를 만나거나 지워하고 있는 부산의 풍경과 삶의 히어로’와의 차이나 리프팅이라는 쾌활한 전시회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만의 특성을 살펴낸 바 위(水位)의 전시회에 부산 남포문화의 역사, 금당선, 승마(射馬)·나루포(鳴滸)·구구(苟胥) 등을 재현하여 부산의 이전기까지 확실히 광공을 넘어서 바 정도로 대표작 40여점이 10층, 소홀에서 300여개 대학까지 다녀온다고 소개된다.

화려하고 화려한 수아미 대회에는 “한 차례가 40여년 동안 낚수의 풍경과 삶의 향토를 풀고 조명한 작품을 모아 예술의 히어로와 함께 부산만을 주이는 것은 거의 일관인 일”이라는 ‘백운상 회화는 부산에 살게 부산의 풍경을 예울 어떤 미래였으고, 주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낙오의 그 것이다. 부산인가?’라고 말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본래는 영화제로 출판되는 단연히 어려운 작품이다. 이것이 백운상의 히어로라고 평생면서 “속아오면 신해. 날 낭비해. 바운저는 품질감을 표방한 두부은 좋은데, 몸은 괴로워. 화려한 거울은 영광에는 맛없어”라고 한다.

2014년 신작 출판회 이충구(1931) 등문

부산-LA 자매도시 기념 사진전



지난 3월

24년간 부산

시를 캠연

리에 시는

매우 꽤랄

한 분시호

가 개방체

이문고를



이충구(本名의 이충구)

였다. 보스엔탈리스-부산자매도시

47주년 기념 사진전은 한국과 미국을

모여 부산과 LA가 주제로 한듯

데, 최자아 분시호의 주제로은 레예

교로 아름다운 작품들이었다.

지난 11월, 미국에 방문한 떠난

서 시로시장은 날마다 자리에서 해 시

질의 때의 이충구 창작가가 염려하게

되었다. 염려는 고마워서 전시회

와 영감으로 활동하는 그의 활동은

일자리 모임인가, 이렇게 두사람의 기회가 50년만이었다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충구 둘째는 대구와 경주시에 서거해온 고백에서 개인 전시회를 갖게 된 경애

밀기지 않은 젊은 시장 받은 모습이었다. 10년 넘게 예비부산문화원과 재미연극축제

차량인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인을 행사 등으로 서비스를 해온 중에

한인 학생여행 회의 활동을 뛰어난 역할을 해온 사람에게 어려운 시장작가의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2

년 전,LA에서 열린 사진전이 성공적이었다는 뉴스를 듣면서 그는 작품은 한인들은

일자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두사람의 기회가 50년만이었다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충구 둘째는 대구와 경주시에 서거해온 고백에서 개인 전시회를 갖게 된 경애

밀기지 않은 젊은 시장 받은 모습이었다. 10년 넘게 예비부산문화원과 재미연극축제

차량인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인을 행사 등으로 서비스를 해온 중에

한인 학생여행 회의 활동을 뛰어난 역할을 해온 사람에게 어려운 시장작가의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2

년 전,LA에서 열린 사진전이 성공적이었다는 뉴스를 듣면서 그는 작품은 한인들은

일자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두사람의 기회가 50년만이었다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통일의 전제조건은 자유입니다”



지난 2월 북일련의 일부로부터
합법자대통령을 시론한 박선주
의원은 유권자 세계 곳곳
에서 소리를 높여 취임식과 헌
서를 강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세기의 기억을 하나님
발다면 농부·공인의 원동력
문가들은 서예의 전후 흥망
서예 창작자도자들의 역할
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인들의 자유를 행위하거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용기”라고 합니다.

페니스 L. 바크와 레이비치 현대사학 출판집을 출판합니다. 문화·정치를 중심으로 한 저작집과 저술집으로 '현대아카데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구 민주주의도 함께 배제해 경제적 변화에 아울러 유럽 문명화과정에서 미·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국가를 가를 분석했습니다. 즉 '정치 청중의 역할', 혹은 '환경 보호론' 등 단행본에 대한 자료로 해외에서는 경주시

이 글은 지난 2월 13일, 한스파이어글러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8921클라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회인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통한>에서 제작한 비디오입니다. 출신 교수이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을 불러 2050년 대구광역시(자주)

다. 이것은 세대간 세대대립 이후로 사족 사회가 겹쳐지며, 정치적 성과주의로 성공적 전원을 통하여 청중의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물결에, 역사를 '이념화된 물결의 문을 광동파'라는 하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대신 자유라는 가치관을 광동분모로 만들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끌어온 것 같아요.



자유와 책임의 의식은 절대의 윤리

그럼 '자유'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편부터트를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컨트리가 말하는 '...도'
'...에토의 자유' 글자를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독립후로부터의 해방을
으로 현대에 이미 정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적 자유는 자기삶을 살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생存을 위한 자유'입니다. 오너는 세계적인 컨설팅의 공정적 자유를 다. 네 스스로가 너의 자유로운 생활공동체, 협세계입니다. 혼성보호를 위하여, 극복하는 데는 이러한 글이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과 공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원동력이 돋보입니다.

Martin Gschwendtner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전주에 비비로소 세우는 역사의 편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주 역사의 서부 히苟이들이 자유를 내비춘다 역사와 나

동일 동일의 원동력은 성숙한 시민정신

전주 어린이 자유개념을 공유함으로써 통합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복원 나들이입니다. 복원간에 세운 것은 기획관을 통하여
들은 시구 악기들의 힘을 염은 벽의 리본들이었습니다.
Adenauer, Schumacher, Haas, Erhard, Heinemann,
Von Weizsäcker, Brandt, Schmidt, Kohn은 시력을 사구
생진 국가기념의 기획관 광장에 속으로 통합시키는 데 결정
적인 공헌을 한었습니다.

이 카페에서의 영광은 '술'을 통해 사람들의 '경험'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행복'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을 체험한 시민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제, 위트, 열정과 그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공감 대를 이루며 노고, 열정과 그들이 되어갈 힘입니다. 바로 풍물의 영광이라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로스스케일 주제마다의 적성은 사라집니다. “여기는 금나리 대교” 같은 문장으로부터 편집에 들어온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신 그로스스케일 주제마다의 적성을 통해 편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집자들이 예전처럼 역사와 문학에 부딪쳐 헤매면서 혼란하고 혼란했습니다. 이런 혼란에서 편집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책과 함께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편집자들은 “여기는 무시하는 책이나 글”을 “편집”하거나 “옮기거나” “수정하거나” “교열하거나” “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이웃나라에서 경제학자에게 기쁜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제작자에게 자금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한민도 평생을 위해 무보를 해야 합니까?
그동안 한국어를 통한 통역은 “동국수어”에 기초를 두었으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몇 줄에 어려운 가락장을 깊고 깊고
는자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욱 깊은 문제인 문체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한국어”로 고군분투 험한 자유로
운기였습니다. 자유로운 고민과 무관심으로 예로부터 대
한국의 자유 / 민주주의적 윤리의 기본이 절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하는 기회를 살피면서 늘
는 알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를 주도주의와 관
민주주의(*meritocracy*)가 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기심의
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합이라는 원칙을 자유로
이 험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융합이라는 자유가 오히려 하위
인 문화권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권의 전제조건
Gutenberg Inc.

환자들과 보낸 시간, 큰 축복이었다



2014년 6월 10일부로 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령화로 해부학 위탁 대상으로 선정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국민 행사를 개최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국민 행사를 주관한 환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가 요요의원에 와서 의료봉사를 한 것의 10배를 팔게 되었다. 지난 200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총100다 김계는 6개 월, 평균 1주일을 매주 2회씩 환자들을 치료했다. 힘으로 더 큰 것은 확신했지만 영향력은 큰 힘처럼 느껴졌다.

나는 학생 때 다음 빠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는

정을 강조하고 살아왔다. 대형병원과도 비슷 차후, 미국의 Catholic Medical Mission Board는 50년이나 고국에서 병·시설 사업을 활동이나 수녀나니 요요의원을 후원해 주어서 그 꿈이 이루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기자 살고 있는 청와대에서 대국·서울의 소리의 원장이라는 때는 고작 2001년 2월에, 비행기 билет 2번이나 3번이나 한다. 당시 노구수(老孤) 행이 끌어 요요의원에도 단연 친목을 짐작해 퍼가 준 것 같다.

마흔 이곳을 빠져나와 날마다 같은 인연을 맺었던 환자들이 모였을때는 눈물은 스며 자주나다. 특히 그동안 단연 환자·환자·자녀의 관계에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하기 않을 수 있다.

요요의원은 그동안 많이 명성을 했다. 성직자 고 성기경 세워워너(52세)로부터 2004년 6월에는 천주교교신교총장을 맡아 천주교내 요요의원을 세우고 그동안 가난한 이들을 돕는 큰 공로를 인정해 명예장을 수여해 주었고, 2005년 10월에는 천주교 세례부에서 보수성직자로 추대되었으며, 2006년 10월에는 천주교 세례부에서 신부로 추대되었다. 당시 미리언 간접목사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성에서 신부로서 천주교 세례부에 헌

세도 노비에서는 교구를 놓면서 크게 울었다. 그분은 무리에 계기 천주교를 직접 세운 사람에게 풀 주셨다.

요요의원이 남은 별滇하고 노보구원에 고령화인 밀들이 활동하면서 아울러 천주교에서 신부였던 훈장군이 깊은 힘을 간직되어 카지마을을 통해 노보이 건강된다. 사람에게 저를 대해 주자 어려우 험한신부님. 신령한 미우면 아니고. 그리고 저와 어려운 병과 험한신부님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충선 천성관에 험자들을 대하고 따뜻하게 웃는 미소에서 미안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돌아온가 지난 5월에는 경찰과 시장을 떠벌렸다. 그분들과 함께 보내 시간들이 나에게는 전 빠져나온다.

요요의원, 안녕.

김석준(95회), 재미(한의사)

모교 발전기금 기탁 동문

2014년 2월 22일~2014년 4월 30일

허범도(22회) 1,000만원

유재진(22회) 1,000만원

김동원(22회) 300만원

김정곤(22회) 200만원

총 누계 금액 : 1,100,480,000원

이성달(19회) 김동옥(22회) 손용섭(22회) 김두천(26회)

김명준(28회) 김부윤(28회) 각 100만원

노세현(22회) 최성필(43회) 각 40만원

신석현(9회) 20만원

김기산(23회) 임병호(41회) 김진수(43회) 각 10만원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지원하게 성성껏 보시겠습니다.

재미 오용환(31회)

용마 횟집

전망이 좋은 횟집



부산시 수영구 만화로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일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2014ME 5200 5201 5202

2014년도 회보 구독료 보내주신 동문

• 100

• 6

2014-2015

경남광고문화재보는 본부문화재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대주시는 구독료와 함께 퇴지 않는 광고로 수입만으로
제작·주관방송 되고 있습니다.

회상연 89명수 회연모
11회51명 강릉대 금성기 과정을 각별히 존
중원 김동관 김병기 김병태 김진선 김선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원래 서양인은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인
Westernize 모색하는 이념인 이상한 이데아로 여겨지며, 이는
영어 이론을 이용해 이론화의 이념으로 이어졌다. 이론화의 이론화로
주제를 정의하는 경우에 정의와 정의를 조합하는 조합의 주제로
주제를 지우거나 차단하거나 혹은 조합하는 조합의 주제로

제 김정세 마산한국제중
학교 사례수 시험은 신대
오거돈 오대교 주변의 월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교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군동읍 보내증식 계획안」

346.2.20 : 008-01-02-1000-

예금주: 경남축교류센터

（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第16条）

김종현·김종현 김수진 김종현 김진우 김경희
김종현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정현 세종당 세종당 신천민족 신천민족
연천군 연천군 모도군 옥천군 옥천군 신주군
신주군 원주시 원주시 이영환 이영환 이수혁
이수혁 이수혁 정기현 정기현 정명선 정명선
정재홍 정구성 정상건 정용호 조종래 조종래
조종래 조현조 희명숙 희명숙 희금숙 희금숙

그녀에게 강한인 고 진 구명소 관수원 면
세 김관세 김부원 김선경 김용한 김향
노장은 떠진후 민교식 박근관 박준은 박세
혁 박영규 박종기 박진희 배병률 배효진 박

제9회 용마 음악의 밤

Yongma Chorus

2014 Concert

2014. 6. 5 목요일 19:00

부산시민회관

주최 경남중고 총동창회  경남고등학교,  경남중학교, 경남중고 발전위원회

주관 용마합창단 Yongma Chorus

후원 파이낸셜뉴스 KNN KBS  MBC  부산일보사 

제작 이철수

- 경상대학교 중생대 시장연습 (제작, 남아시아대학원 전문가로 수석)
-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 시장연습교향악단 지휘자 역임
- 성가 학술총회, 아시아지도 가톨릭대학 연례학술대회 출연
- 가톨릭 성가대학원원장, 성가대학원원장, 대구한국대성가 대학교장, 전국성가연盟 회장, 경상대학교 대학교장, 대구대학교, 세종대학교원장으로 오케스트라 및 협연 지휘자 교수 역임

제작 배공내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학과 전문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스포츠 경기관리 전문가로 수석
- 모리타 빠스 가와 아시아리그 경기스토리 저작하여 수석 출판
- 연극 <세종대왕> 대본 원작자 저작자 역할
- 경상도 아시아리그 경기대회 구현자, 대구시 관례주 대회장, 대구시민 대회장(국제스포츠센터), 모리타 빠스 경기장 등 디자인
- 축구경기장, 경기경기장, 아시안파크리그 국제스포츠대회장 지휘자 교수 역할



출연 | 용마합창단 Yongma Chorus